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는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서 "네가 그 선지자냐"라고 묻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를 촉구하고 세례를 베푸는 것을 본 유대인들이 묻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엘리야냐" 아니면 "네가 그 선지자냐". 이와 같은 질문에 세례 요한은 숨기지 않고 드러내어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며 그 선지자도 아니라".

헬라어로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한 엘리야는 말라기 4장5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엘리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세례 요한에게 '네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인가?' 또는 '네가 하나님의 심판의 날 전에 보내심을 받은 엘리야인가?'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네가 그 선지자인가?'라고 묻는 것이기도 한데, 여기서 말하는 '그 선지자'가 바로 오늘 읽을 신명기 말씀 중에서 18:15에 나와 있는 '선지자 하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이와 같은 질문에 세례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요1:23)"라고 답변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현재의 암울한 상황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극히 일부분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서 죽이고야 만 것입니다.

그러면 이토록 메시아를 갈망하던 유대인들이 정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왜 그 분을 배척하고 죽이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관심이 언제나 육신적인 것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로마의 황제와 군인들이 자신들을 압제하고 있는 현실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종으로 살다가 영원한 멸망을 향해 죽어가고 있는 자신들의 본 모습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임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마1:21).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신명기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14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분의 계획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해 가는 중에 다른 계획이 있었지마는 본래 있

던 그 계획을 수정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처음부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서 뿐 아니라 구약 전체에서 예수님의 그림자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구약에서 오시기로 예언한 메시아, 그 선지자가 예수님을 가리키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와 같은 질문을 신명기 당시에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8장 21절에 보면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이 말씀은 바로 앞 절인 20절의 말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앞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들을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는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는 어떤 선지자라도 하나님이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거짓으로 전하든지 아니면 다른 신의 이름으로 전하는 선지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명령하신 말씀만을 전할 것임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임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 질 때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말씀과 그 분께서 행하신 기적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등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그 선지자"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31절부터 보면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

컬어질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9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는 예수님 스스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것을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요6:29 참조).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계시는 생명의 말씀이시며(요일1:1)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요1:14). 또한 요한복음 7장 16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 스스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우리들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신 것이었습니다(히 7:27, 9:12, 요일4:9).

또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고전15:4)"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고전15:17)"라고 말함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강력하게 반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을 받은 후에 그 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을 전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진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행2:23-24)"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행1:11, 계1:7). 그리고 다시 오실 때에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인데 그 때에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오실 것입니다(마16:27, 계19:11-16 참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어느 곳을 읽어도 예수님을 발견하는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갚진 보화를 발견하며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 안에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분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